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임진희*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Comparison with 'Gu-Bon' and 'In-Bon' 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Lim Jin-ny* · Lee Eui-ju* · Koh Byung-hee** ·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Purpose

'Gu-Bon' of 『Soose Bowon』 found lately was written in 1940, through comparing with 'Gu-Bon' and 'In-Bon'. In 'Gu-Bon' and 'In-Bon', there are many different content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nd changes of Dong-Mu's recognition 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from 1894 to 1900

2. Methods

Comparing with 'Gu-Bon' and 'In-Bon' 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Mechanism · region · main symptom and treatment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are arranged. and changes of Dong-Mu's recognition 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from 1894 to 1900 was found

3. Results

- 1) In 'Gu-Bon' of 『Soose Bowon』, Dong-mu recognized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mainly through the conception of 'ventral-dorsal-interior-exterior' and 'Main Qi of life protection'
- 2) In 'In-Bon' of 『Soose Bowon』, Dong-mu recognized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mainly through the conception of 'ventral-dorsal-interior-exterior' and 'Ascending of Yang-Qi and Descending of Yin-Qi'
- 3) In 'Gu-Bon' of 『Soose Bow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was classified into 'Taeyang Disease' and 'Yang-myung Disease'. But In 'In-Bon' of 『Soose Bow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was classified into 'Mang-yang' and 'Ul-guang'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임진희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1-25 201호 전화)011-9992-2968 E-mail)740424jh@hanmail.net

I. 緒論

東武 李濟馬(1837-1900)의 『東醫壽世保元』 출판 과정을 보면 1894년(甲午年)에 처음 저술한 이후(甲午本·舊本) 임상 경험을 축적하여 1900년(庚子年)까지 「性命論」부터 「太陰人論」까지 改草하였으며(庚子本·新本), 동무공 死後에 그의 門徒들에 의해서 1901년(辛丑年)에 처음 출판된 이후(辛丑本·印本) 여러 차례의 출판이 이루어졌는데¹⁾, 최근에 발견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東武 李濟馬의 從曾孫인 李鎭胤의 아들인 李聖洙翁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李聖洙翁에 의하면 부친이 1940년(庚辰年)에 韓敏甲에게 舊本(甲午本)과 印本(辛丑本)을 대조하여 印本에는 없고, 舊本에만 있는 구절들을 舊本의 조문 순서대로 필사한 것이라 한다.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東武 李濟馬의 病證에 관한 인식과 病證 치료에 관한 인식 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을 중심으로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각각 東武 李濟馬가 제시하고 있는 病證의 발병 기전, 발병 부위, 주요 증상, 치료법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비교하여 甲午年부터 庚子年에 이르기까지 東武 李濟馬의 인식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論

I 少陰人 病證

1. 少陰人 表病

1)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陰人 表病

(1) 少陰人 表病에 관한 기본 인식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表病을 ‘外感膈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少陰人 表病을 크게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분류하였으며²⁾, 太陽病의 주요 병리기전은 少陰人의 表³⁾의 標⁴⁾에 해당하는 膀胱表局의

外禦之陽이 不足한 것으로 보았으며, 陽明病의 주요 병리기전은 少陰人의 表의 本에 해당하는 膈膜裏局의 內守之陽이 不足한 것으로 보았다. 太陽病의 주요 증상은 惡寒으로, 陽明病의 주요 증상은 煩熱로 보았다⁵⁾.

甲午本에서는 少陰人의 ‘外感膈病’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으로 ‘益氣而升陽’을 제시하였으며, 太陽病의 치료에는 다시 크게 發熱惡寒無汗者와 發熱惡寒有汗者로 나누고 發熱惡寒無汗者에는 芎歸香蘇散·加味正氣散을, 發熱惡寒有汗者에는 川芎桂枝湯·黃芪蘇葉湯을 사용하고, 陽明病에는 補中益氣湯, 獨蔘八物湯, 人蔘黃芪附子湯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2) 少陰人 表病의 三大 病證에 관한 고찰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汎論」에서 少陰人의 六大病證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그 중 세 가지는 表病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裏病이다. 우선 表病에 속하는 三大病證에 관하여 고찰해보면 表病의 三大病證을 東武 李濟馬는 陽明病, 太陽病 厥陰證, 太陽病 胃家實證으로 보았으며, 각 病證의 구별을 위해서, 각 病證의 증후상의 특징과 輕重危險·正邪偏重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少陰人 表病의 三大 病證

병증	특징
陽明病	發熱汗出 而病益甚者
	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
太陽病 厥陰症	惡寒汗出 而其病半解半不解者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
太陽病 胃家實證	發熱六日 不得汗解
	正邪雍錮之病 不可不大用藥

尾汎論」3條

“少陰人 以陽煖之氣爲保命之主 故 腎胃爲本而膀胱大腸爲標也.”

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32條

“膀胱者陰之分局也 陰氣者寒氣也 膈膜者陽之分局也 陽氣者熱氣也.

膀胱表局外禦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膀胱之表局者 以正犯邪故惡寒也.

惡寒不作者 正不退邪也 正不退邪者 太陽力屈之病也. 膈膜裏局內守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膈膜之裏局者 以邪犯正故煩熱也.

煩熱虛張者 邪益逼正也 邪益逼正者 卽陽明勢孤之病也.”

1) 전국한의학대회 상상의학교실·사상의학, 서울, 集文堂, p.34
 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汎論』1條
 “論曰 張仲景所論太陽陽明病 卽少陰人之表病也. 太陽病表之表病也 陽明病表之裏病也”
 3) 表는 腦頤, 膈, 腰, 膀胱을 의미한다.
 4) 『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

辛丑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식 이외에는 각 병증의 발병기전에 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甲午本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甲午本에 나타난 각 병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① 太陽病 胃家實證

辛丑本에서의 胃家實證을 이해해 보면 「腎受熱表熱病證論」에서는 마치 陽明病의 범주에 속하는 듯한 설명이 보이다가⁶⁾, 「汎論」에서는 胃家實證을 ‘太陽病 胃家實證’이라는 명칭이 나와⁷⁾ 혼돈을 유발하는데, 甲午本에서는 동무공이 胃家實證을 太陽病 범주로 인식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즉 甲午本에서는 胃家實證을 太陽 膀胱에서 병이 시작하여, 이것이 太陰 大腸에까지 영향을 끼친 病證으로 인식하고⁸⁾, 膀胱之陽氣의 부족이 胃家實證의 가장 근본 원인이므로 太陽病으로 인식하였다.

胃家實證의 주요 증상은 腹滿 大便硬 發狂이며⁹⁾ 太陽病 胃家實證에서는 초기 重險證(不更衣內實大便難)일때는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升陽八物湯을 이용하고, 병이 危證(澹然微汗出潮熱微喘)에 이르면 獨參八物湯, 補中益氣湯, 健脾壯胃湯을 이용하였다.

② 太陽病 厥陰證

辛丑本에서는 太陽病 厥陰證에 관한 병리 기전에 관한 설명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에 대한 단서도 甲午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甲午本에서는 太陽病 厥陰證의 병리 기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선 생리기전에 관해서 辛丑本에서는

볼 수 없는 설명이 나오는데¹⁰⁾ 이를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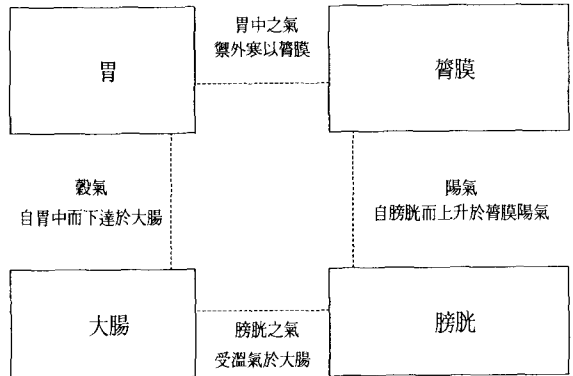


그림 1. 少陰人 陽氣와 穀氣의 운행 기전

인체의 대표적인 氣인 陽氣와 穀氣의 운행은 이상과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太陽病 厥陰證의 병리 기전을 甲午本에서는 ‘胃氣單弱而大腸溫氣微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앞서 ‘少陰人傷寒病 正邪相爭累日不快則 陽氣之上衛於膈膜者 蹇滯故 胃氣之外以禦寒氣而中以所自立者 亦單弱大腸溫氣’이라는 설명이 있듯이¹¹⁾ 厥陰病의 가장 근본적인 발병 기전은 傷寒 등의 원인으로 膀胱의 陽氣가 膈膜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厥陰證을 太陽病의 범주로 본듯하다.

太陽病 厥陰證의 주요 증상은 처음부터 腹痛下利의 증상은 없이 惡寒發熱汗自出의 증상이 몇일 나타나다가 갑자기 手足逆冷의 厥症이 나타나는 것이며¹²⁾, 太陽病 厥陰證에는 薑朮壯胃湯, 獨參官桂理中

6)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卷之三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證論」 35條
 “陽明病 胃家實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7)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汎論」 5條
 “少陰人病 有六大證 一曰 少陰病 二曰 陽明病 三曰 太陰病 陰毒證也 四曰 太陽病 厥陰證也 五曰 太陰病 黃疸證也 六曰 太陽病 胃家實證也.”
 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55條
 “論曰 太陽病表證因在而小腹硬滿之病 始發於太陽膀胱之陽氣 不能逐寒氣而 太陰大腸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胃家實而 危險之勢終至於潮熱直視也.”
 9)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26條
 “胃家實病形證 腹滿大便硬發狂者 爲主證而 其始焉身熱汗不出不惡寒也.”

1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55條
 “膈氣衛外膈氣者陽氣也. 胃氣榮內胃氣者穀氣也. 陽氣自膀胱而上升於膈膜也 穀氣自胃中而下達於大腸也. 膀胱之氣 受溫氣於大腸 胃中之氣 禦外寒以膈膜.”
 1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55條
 “少陰人傷寒病 正邪相爭累日不快則 陽氣之上衛於膈膜者 蹇滯故 胃氣之外以禦寒氣而中以所自立者 亦單弱也. 胃氣單弱則 穀氣之下達於大腸者 亦微薄故 膀胱之受溫氣於大腸 又微薄也. 蓋太陽病厥陰證 正邪相持累日之餘 胃氣單弱而大腸溫氣微薄故 猝然而厥也.”
 1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

湯을 주로 사용하였다.

2) 辛丑本에서 인식한 少陰人 表病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表病을 ‘腎受熱表熱病證’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腎受熱表熱病證은 少陰人の 경우 ‘腎大脾小’한데 腎大로 인하여 腎陰이 왕성하면 그의 腑인 太陽이 升陽 작용을 하지 못하고 울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表病은 크게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별하고, 각각을 初證 中證 末證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¹³⁾. 즉 少陰人 表病에서는 太陽傷風證은 ‘發熱, 惡寒’하는 증상을 말하며, 여기에서 有汗者와 無汗者로 대분되는데, 이것이 鬱狂證과 亡陽證의 初證이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無汗者는 陽明胃家實證으로, 有汗者는 陽明脾約으로 中證·末證을 거치게 되며 太陽病의 變證으로 太陽病 厥陰證이 있는 것으로¹⁴⁾ 인식하였으며, 각 단계의 주요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少陰人 表病의 주요증상

	鬱狂證	亡陽證
初證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
中證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	陽明病 不惡寒反惡熱 汗自出
末證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	陽明病 發熱汗多

辛丑本에서 제시한 病證의 치료법도 ‘益氣而升陽’으로 甲午本과 유사한데, 처방의 운용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된다.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表病을 크게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분하고, 鬱狂證에는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을 이용하고, 亡陽에는 初證에서는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하고 삼일을 사용해도 땀이 그치지 않으면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

子湯을 사용하였고, 亡陽의 危證에 사용하는 처방(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의 운용에서는 소변의 색과 양을 참고하여 附子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3) 少陰人 表病에 대한 甲午本과 辛丑本의 인식 차이

우선 病證名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甲午本에서는 病證名의 설정에 있어서 東武 李濟馬가 초기에 설정한 발병 원칙에 따라 表部에서 外感病이 발생하며, 발병의 주요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위가 질병 발생의 근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陰人 表病을 ‘外感腎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庚子年까지의 치료 경험을 거치면서 신축본에 이르면, 少陰人 表病은 腎局에서 脾局으로 올라가는 陽氣의 상승이 장애를 일으킨 것이 질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腎局에서의 陽氣 상승이 장애를 받으면 腎局에 陽氣가 축적되어서 病證이 발생된다고 보고 ‘腎受熱表熱病證’이라는 病證名으로 病證名을 바꾸게 된다.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도 甲午本에서는 病證을 크게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구분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太陽病과 陽明病에 사용하는 처방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太陽病의 초기에는 亡陽과 鬱狂으로 病證을 구분하여 처방을 사용하는 개념은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陽明病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처방의 구성에 있어서도 亡陽과 鬱狂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少陰人 表病의 치료를 위해서는 病證을 太陽病과 陽明病의 구분하기보다는 亡陽과 鬱狂으로 구분하여한다고 제시하고, 鬱狂證에는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을 이용하고, 亡陽에는 初證에는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하고 三日을 사용해도 땀이 그치지 않으면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亡陽의 危證에 사용하는 처방(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의 운용에서는 소변의 색과 양을 참고하여 附子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파두의 사용에 있어서도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甲午本에서는 巴豆를 太陰

論』 55條

“論曰 張仲景所論 厥陰病 初無腹痛下利等證而 六七日猝然而厥 手足逆冷則 此 非陰證之類也. 乃少陰人 太陽傷風 惡寒發熱汗自出之證 正邪相持日久 當解不解而 變爲此證也.”

13)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사상의학, 한국, 서울, 집문당, p.155

1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p.160

證 要藥으로 인식하고, 陽明證 亡陽에는 사용을忌하라고 되어 있었으나¹⁵⁾,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11歲 兒 汗多亡陽病의 치료에에서 附子 2錢을 사용하는 亡陽의 危證에도 巴豆를 사용한 증례 후에는, 巴豆의 용법은 太陽病과 陽明病의 구분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全粒 下利, 半粒 化積’이라는 용량에 따른 차이만을 남기면서, 辛丑本에서는 이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2. 少陰人의 裏病

1)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陰人 裏病

(1) 少陰人 裏病에 관한 기본 인식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裏病을 ‘內觸胃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少陰人 裏病은 甲午本에서도 크게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나누어 인식하였으며¹⁶⁾, 甲午本에서 少陰病과 太陰病의 병리기전, 병증의 특징, 증상, 치료에 관하여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陰人 裏病

	太陰病	少陰病
병리기전	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少陰人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병증의 특징	裏之表病	裏之裏病
증상	口不燥心不煩 下利黃水	口燥心煩 下利青水
치법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以助溫煖	芎藭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以制陰寒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裏病은 大腸과 胃의 裏에서 발생한 病證으로 보았으며, 少陰人은 陽煖之氣를 保命之主로 삼으며 裏에서는 胃를 本으로 보고, 大腸을 標로 보고, 太陰病은 少陰人의 標에 해당하는 大

腸之胃氣의 虛弱으로 발생하므로 裏之表病으로 인식하고 증상도 비교적 완만하게 口不燥心不煩 下利黃水으로 나타나고 치료는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으로 助溫煖하여 부족한 陽煖之氣를 보충하는 것으로 하였다. 少陰病은 少陰人의 本에 해당하는 胃中之胃氣의 虛弱으로 발생하므로 裏之裏病으로 인식하고 증상도 太陰病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口燥心煩 下利青水로 나타나고 치료에서도 芎藭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으로 부족한 陽煖之氣의 보충보다는 너무나 커진 寒氣를 치료하는 制陰寒의 치법을 제시하였다.

(2) 少陰人 裏病의 三大病證에 관한 인식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汎論」에서 少陰人의 六大病證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그 중 세 가지는 表病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裏病인데, 裏病에 속하는 三大病證을 고찰해 보면, 裏病의 三大病證을 동무공은 少陰病, 太陰病 陰毒證, 太陰病 黃疸證으로 보았으며, 少陰人 裏病에서 각 병증의 구분을 위해서 증후상의 특징과 輕重危險·正邪偏重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病證을 나누었다.

표 4. 少陰人 裏病의 三大 病證

병증	특징
少陰病	通滯下利 而病益甚者
	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
太陰病 陰毒證	腹痛下利 而其病半解半不解者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
太陰病 黃疸證	食滯六日 不能化下得
	正邪壅錮之病 不可不大用藥

辛丑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식 이외에 각 病證의 발병기전에 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甲午本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① 太陰病 陰毒證

辛丑本에서는 三大病證으로 인식한 太陰病 陰毒證에 관하여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데, 甲午本에서도 太陰病 陰毒證에 관한 내용은 辛丑本의 少陰人 汎論의 내용 이외의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치료에 있어서는 獨蔘附子理中湯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大便의 滑利·秘閉에 따라 或加生附子五分하거나,

1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腎病論』 43條

“巴豆太陰證之要藥也。太陽證或用之者 以復硬滿之證兼太陰積滯故也。大忌陽明證 若亡陽誤用則危。”

1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條

“論曰 太陰少陰病 卽少陰人之裏病也。太陰病 裏之表病也 少陰病 裏之裏病也。”

兼用巴豆 半粒或全粒의 치료법을 사용하였다.

② 太陰病 黃疸證

太陰病 黃疸證은 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이라는 太陰病의 병리에 食物蹇滯이 五六七日이르러도 消化下利하지 못하여 만들진 太陰病 腹滿食不下한 裏病인데¹⁷⁾, 病證이 초기에는 表氣가 太陰大腸之胃氣에서 壅遏한 病이 冷氣를 逐하지 못하고 太陽膀胱之氣 또한 通快하지 못하고 凝結하여 이루어진 병으로 인식하였다¹⁸⁾. 즉 병의 근본 원인은 太陰大腸之胃氣의 이상인데 이것이 太陽膀胱之氣의 이상까지 초래하여 이루어진 병증이므로, 黃疸病을 太陰病으로 인식하였다. 주요 처방은 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瘴疔丸 芎歸葱蘇理中湯 桂附霍陳理中湯이다.

2) 辛丑本에서 인식한 少陰人 裏病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裏病을 ‘胃受寒裏寒病證’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이의 발생기전을 少陰人脾小한 특징을 지니므로 항상 脾陽이 부족하여 陰化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升陽하는 기운이 부족하여 생긴 陰實之氣의 輕重에 따라 病證을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나누었다¹⁹⁾.

太陰病과 少陰病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辛丑本에서의 少陰人 裏病

	太陰病	少陰病
병리기전	胃中溫氣 猶勝大腸寒氣而 下降	大腸寒氣 必勝胃中溫氣而 上升
병증의 특징	大腸之泄瀉	胃中之泄瀉
증상	腹痛自利 無口渴 口中和 無身體痛 骨節痛 表證	腹痛自利而 有口渴 口中不和 有身體痛 骨節痛 表證
치법	溫胃而降陰	健脾而降陰
대표 처방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官桂附子理中湯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裏病을 크게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나누고 각 치료 원칙을 ‘溫胃而降陰’, ‘健脾而降陰’으로 제시하고 처방에서는 太陰病에는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을, 少陰病에는 官桂附子理中湯을 제시하고 있다.

3) 少陰人 裏病에 대한 甲午本과 辛丑本의 인식 차이

病證名에서 차이를 보면, 甲午本에서는 病證名의 설정에 있어서 東武 李濟馬가 초기에 설정한 발병 원칙에 따라 裏部에서 內觸病이 발생하고, 발병의 주요 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위가 질병 발생의 근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陰人 裏病을 ‘內觸胃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庚子年까지의 치료 경험을 거치면서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裏病은 胃에서 大腸으로 陰氣가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病證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胃에서 大腸으로 陰氣의 下降이 장애를 받으면서 胃에 陰氣가 축적되면서 病證이 발생된다고 보고 ‘胃受寒裏寒病證’이라는 病證名으로 病證名을 바꾸게 된다.

少陰人 裏病의 치료에 있어서 甲午本·辛丑本 모두에서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크게 구별하여 처방을 사용하는 등 치료에 있어서는 처방의 구성상에 나타나는 몇 가지 차이 외에는 거의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II 少陽人 病證

1. 少陽人 表病

1)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陽人 表病

1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27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蹇滯而歷三四日至五六七日 新氣雖則添積漸不快健 終不變革消化 下利之證也”

1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28條

“論曰 太陰病腹滿食不下而表氣壅遏之病 始發於太陰大腸之胃氣 不能逐冷氣而 太陽膀胱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黃疸而 危證之勢終至入腹喘滿也.”

19) 전국한외과대학사상의학교실:사상의학, 한국, 서울, 집문당, p.155

(1) 少陽人 表病에 관한 기본 인식

甲午本에서는 少陽人 表病을 ‘外感膀胱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少陽人 表病을 크게 張仲景所論의 大靑龍湯證小柴胡湯證과 李子建所論의 腹痛泄瀉證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張仲景所論의 大靑龍湯證小柴胡湯證은 少陽人 表之表病으로 보았으며, 李子建所論의 腹痛泄瀉證은 少陽人表之裏病으로 보았다²⁰⁾. 張仲景所論의 大靑龍湯證小柴胡湯證의 병리기전은 ‘少陽人膀胱下降之陰氣爲熱邪所壅 未達下降 凝聚脘間膠固囚滯之證’으로 설명되었는데²¹⁾ 이를 보면 少陽人의 少陽病은 膀胱으로 내려와야 하는 背脊(少陽人의 標局)의 陰淸之氣가 허약하여 하강하지 못하고, 背脊에 凝滯되어 발생한 병증으로 인식하였으며, 腹痛泄瀉 病證은 ‘膀胱內守之眞陰虛弱 熱氣相迫之故’라고 하여²²⁾ 少陽人의 本인 膀胱의 內守之眞陰이 虛弱하여 病證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少陽病의 주요 증상은 “口苦 咽乾 目眩 寒熱往來 胸脇滿”이며, 腹痛泄瀉의 주요 증상은 “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或但痛不泄”로 설명하고 있다.

病證의 치료에 있어서, 少陽病의 경우는 초기에는 寒多·熱多에 따라 荊防敗毒散·防風通聖散을 이용하고 병세가 진행하면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을 이용하였으며, 腹痛泄瀉에는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을 사용하였다.

2)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陽人 表病 病證

甲午本에서 보이는 少陽人 表病에 관한 인식 중 辛丑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2條
“張仲景所論大靑龍湯證小柴胡湯證 卽少陽人表之表病也. 李子建所論腹痛泄瀉證 卽少陽人表之裏病也. 王好古所論上消中消下消證 卽少陽人裏之表病也. 張仲景所論傷寒謔語證 與龔信所論陰虛午熱證 卽少陽人裏之裏病也.”
- 2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11條
“曰 張仲景所論少陽病 卽少陽人膀胱下降之陰氣爲熱邪所壅 未達下降 凝聚脘間膠固囚滯之證也.”
- 2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8條
“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或但痛不泄者卽 膀胱內守之眞陰虛弱熱氣相迫之故也.”

① 結胸에 관한 인식

辛丑本에서는 結胸이라는 病證의 증상과 치료에 관하여서는 많은 언급이 있는데 반하여, 병리기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甲午本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少陽病과의 관련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少陽人 結胸도 少陽病과 유사한 병리기전으로 이루어진 病證으로, 그 발병기전은 膀胱陰氣未達下降而困於脘間하면 口苦咽乾目眩之證의 少陽病이 나타나다가 여기에 外冷이 싸서 外冷包裏熱心下하면 結胸이 되는 것이며²³⁾ 이의 주요 증상은 不惡寒, 汗出短氣, 燥渴謔語, 水入則吐이다.

치료에는 나타나는 증상 따라 처방의 내용이 바뀌는데, 水逆還吐而結胸者는 甘遂를 急用하고, 汗出短氣而結胸者는 柴胡瓜蒌湯을 사용하고 甘遂의 사용은 자제하고, 燥渴謔語而結胸者는 柴胡瓜蒌湯合白虎湯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結胸病은 少陽病이 경과하여 생긴 次重證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²⁴⁾.

② 病證의 배속

甲午本에서는 辛丑本의 汎論에서는 산재되어 있어 그 병증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힘든 병증을 정리한 흔적이 있다.

즉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의 다섯 가지 병증을 表之裏病의 범주에²⁵⁾, 浮腫 喘促 結胸 寒熱往來胸脇滿 發熱惡寒身體痛을 表之表病의 범주에

- 2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0條
“論曰 少陰人傷寒病有小腹硬滿之證 少陽人傷寒病有心下結胸之證 此二證俱是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裏氣亦秘澁不和而變生此證也. 少陽人病膀胱陰氣未達下降而困於脘間則 口苦咽乾目眩之證作而 外冷包裏熱心下生此病也.”
- 24)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5條
“今考更定 少陽人膀胱病 發熱惡寒身痛煩脈浮緊者 初輕證也. 寒熱往來胸脇滿者 次尤證也. 結胸者 次重證也. 短氣喘促者 次險證也. 短氣喘促者 膀胱不足之竭勢也. 不急治必危”
- 2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2條
“表之裏病大目有五 一曰中風 二曰吐血 三曰嘔吐 四曰腹痛 五曰食滯痞滿.”

배속하며²⁶⁾, 각 병증의 발병 기전을 보면 中風 吐血 등이 속하는 表之裏病은 膀胱眞陰이 剝傷不支하여 膈膜에 上逆한 病이며, 浮腫 喘促이 속하는 表之表病은 膈膜清氣가 凋殘不壯하여 膀胱에 未達한 病이다²⁷⁾. 그리고 少陽人의 瘧疾을 寒熱往來胸脇滿之屬으로, 痢疾은 結胸之屬으로 인식하였다²⁸⁾.

2) 辛丑本에서 인식한 少陽人 表病

辛丑本에서는 少陽人 表病을 ‘脾受寒表寒病證’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脾受寒表寒病證은 少陽人은 ‘脾大腎小’한데 脾大하기 때문에 脾 속의 陽氣가 커서 이것으로 인해 脾 속의 陰氣가 팽박을 받아 하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脾陰을 脾의상 表陰으로 하였다. 少陽人 表病은 울체된 表陰의 정도에 따라 少陽傷風證과 亡陰證 으로 구별하였는데²⁹⁾,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의 병리 기전, 증상, 치료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辛丑本에서의 少陽人 表病

	少陽病	亡陰證
병리기전	腎局陰氣 爲熱邪所陷而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 凝滯腎間 膠固因滯之病也	陽盛格陰於下則 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膈而 內通膈裡
증상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之證	腸胃畏寒而 泄下
처방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身熱頭痛泄瀉 -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치법	清裡熱而 降表陰	

2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3條
“表之表病大目有五 一曰浮腫 二曰喘促 三曰結胸 四曰寒熱往來胸脇滿 五曰發熱惡寒身體痛.”
2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1條
“中風吐血之病 膀胱眞陰剝傷不支而 上逆膈膜之病也. 浮腫喘促之病 膈膜清氣凋殘不壯而 未達膀胱之病也.”
2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7條
“少陽人瘧疾亦寒熱往來胸脇滿之屬也. 痢疾亦結胸之屬也. 淋疾亦強中之屬也.”
29) 전국한외과대학사상외과고실:사상의학, 한국, 서울, 집문당, p.156

3) 少陽人 表病에 대한 甲午本과 辛丑本의 인식 차이

病證名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甲午本에서는 病證名의 설정에 있어서 東武 李濟馬가 초기에 설정한 발병 원칙에 따라 表部에서 外感病이 발생하고, 발병의 주요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위가 질병 발생의 근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陽人 表病을 ‘外感膀胱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庚子年까지의 치료 경험을 거치면서 辛丑本에 오면 少陽人 表病은 脾局에서 腎局으로 내려가야 하는 陰氣의 下降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질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脾局的 陰氣 下降이 장애를 받으면서 脾局에 陰氣가 축적되면서 病證이 발생된다고 보고 少陽人 表病을 ‘脾受寒表寒病證’이라는 病證名으로 病證名을 바꾸게 된다.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甲午本과 辛丑本이 病證을 크게 少陽病과 腹痛泄瀉로 구분한 것과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으로 나눈 것은 유사한데, 사용한 처

방은 차이를 보이며, 또한 亡陰證의 인식이 구체화된다. 즉 甲午本에서는 치료 원칙에 대한 제시도 없고, 처방의 구성에 있어서도 病證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가, 辛丑本에 와서는 ‘清裏熱降表陰’이라는 치료 원칙을 제시하며, 少陽傷風證에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四白散을 사용하고, 亡陰證은 크게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로 나누고, 身熱頭痛泄瀉에는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을 身寒腹痛泄瀉에는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을 사용한다.

2. 少陽人 裏病

1)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陽人 裏病

甲午本에서는 少陽人 裏病을 ‘內觸大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病證을 크게 나누면 王好古所論의 上消 中消 下消證은 少陽人 裏之表病으로, 張仲景所論의 傷寒論語證과 龔信所論의 陰虛午熱證은 少陽人 裏之裏病으로 분류하였으며³⁰⁾, 각 병증의 발병 원인은 上消 中消 下消는 陰虛火動에 胃熱이 肉爛한 病이며³¹⁾, 陰虛午熱의 발병원인은 陰虛火動에 大腸熱이 骨蒸한 病으로³²⁾ 보았다. 이를 보면 少陽人 裏病에서 裏之表病은 少陽人의 裏의 標에 해당하는 胃의 熱로 인한 病證이며, 裏之裏病은 少陽人의 裏의 本에 해당하는 大腸의 熱로 인한 病證으로 인식하였다.

치료에서는 上消 中消 下消에는 淸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의 처방을 응용하였고, 陰虛午熱證에는 水火既濟湯 七味苦參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의 처방을 사용하였다.

2) 辛丑本에서 인식한 少陽人 裏病

辛丑本에서는 少陽人 裏病을 ‘胃受熱裏熱病證’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少陽人의 淸陽이 상승하지 못하여 발병하는데, 이와 같이 상승하지 못한 裏陽은 耗陽이며 火氣이다. 이는 腎小함으로 인해 陰虛되기 쉽고 淸陽, 곧 元氣가 頭面四肢까지 순조롭게 올라가지 못하고 熱化되어 나타나는 병증으로 인식하고 크게 胸隔熱證과 陰虛惡熱證으로 대별하였다³³⁾. 이 두 병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2條

“王好古所論上消中消下消證 卽少陽人裏之表病也. 張仲景所論傷寒論語證 與龔信所論陰虛午熱證 卽少陽人裏之裏病也.”

3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內觸大腸病論』 27條

“今考更定 以上諸證 卽少陽人陰虛火動 胃熱肉爛之病而 中消爲此病之主證. 上消則 中消之初證也. 下消則 中消之末證也.”

3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內觸大腸病論』 31條

“論曰 下消強中 胃火肉爛之久病 陰虛午熱大腸火骨蒸之新病”

33)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한국, 서울, 집문당, p.156

표 7. 辛丑本의 少陽人 裏病

	胸隔熱證	陰虛午熱證
병리기전	淸陽上升之氣 自不快足	裏陽升氣 表陰降氣 俱爲虛損
증상	大便不通	陰虛午熱 飲水 背寒而嘔
처방	涼膈散火湯	獨活地黃湯
치법	淸熱瀉火	滋陰降火

3) 少陽人 裏病에 대한 甲午本과 辛丑本의 인식 차이

病證名에서의 차이를 보면, 甲午本에서는 病證名에 설정되어서 東武 李濟馬가 초기에 설정한 발병 원칙에 따라 裏部에서 內觸病이 발생하고, 발병의 주요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위가 질병 발생의 근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陽人 裏病을 ‘內觸大腸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庚子年까지의 치료 경험을 거치면서 辛丑本에 오면 少陽人 裏病은 胃와 大腸에서의 淸陽의 上升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질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胃와 大腸에서의 淸陽의 上升이 장애를 받으며 축적되어 病證이 발생된다고 보고 ‘胃受熱裏熱病證’이라는 病證名으로 病證名을 바꾸게 된다.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甲午本에서는 上消 中消 下消와 陰虛午熱 傷寒論語로 분류하였으나 辛丑本에 와서는 胸隔熱證과 陰虛午熱로 病證을 나누고 胸隔熱證의 變證으로 上消 中消와 裏熱便閉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甲午本에서는 淸熱과 滋陰의 개념이 혼동되면서, 처방도 혼동되어 사용되었는데, 辛丑本에서는 胸隔熱證에서는 石膏를 위주로 한 淸熱의 처방이, 陰虛午熱에는 熟地黃을 위주로 한 滋陰의 처방이 사용되었다.

III 甲午本에 나타난 病證 개념

1. 病證의 발생 기전에 관한 개념

甲午本에 나타난 病症의 발병 기전을 살펴보면 辛丑本과는 달리 상당히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각 체질의 表病과 裏病의 발병원인이 辛丑本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 언급된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太陽人 衷心深着則 傷表氣(外感腰脊) 傷裡氣(內觸

小腸)

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膂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傾氣 樂情 傷肺胃脘氣

여기에서 보면 인체의 表는 腦傾 膂 腰脊 膀胱이며, 裏는 胃脘 胃 小腸 大腸이라는 원리하에 表病은 外感腦傾病, 外感膂病, 外感腰脊病, 外感膀胱病이며 裏病은 內觸胃脘病, 內觸胃病, 內觸小腸病, 內觸大腸病으로 나누고 각 체질의 취약 부위에서 발생한 病證名을 각 체질의 表病과 裏病의 病證名으로 사용하였다.

② 二大 분류법

甲午本에서는 각 체질의 表病을 다시 表之表病과

表之裏病으로, 裏病도 裏之表病과 裏之裏病으로 나누고 해당 病證을 배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表病과 裏病의 일차 분류는 ①의 방식을 취하고 이를 다시 분류할 경우는 保命之主를 근거로 한 標本을 근거로 이차 분류를 하였다.

즉 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각 체질의 强盛한 부위인 標에서 발생한 病證은 表裏之表病으로, 保命之主와 관련된 本에서 발생한 病證은 表裏之裏病으로 인식하고 해당 病證을 배속하였다.

2.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의 비교

甲午本에서의 내용 중 辛丑本에는 없는 내용 중 한가지가 少陰人 病症과 少陽人 病症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우선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少陰人 病

표 8. 表裏之表裏病의 발병기전과 부위

			병증명	발병기전	발병부위
少陰人	表病	表之表病	太陽病	膀胱表局外禦之陽不足	膀胱
		表之裏病	陽明病	膂膜裏局內守之陽不足	膂膜
	裏病	裏之表病	太陰病	下達膂腹大腸之胃氣虛弱	大腸
		裏之裏病	少陰病	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胃
少陽人	表病	表之表病	浮腫喘促...	膂膜清氣가 凋殘不壯	膂膜
		表之裏病	中風嘔吐....	膀胱眞陰이 剝傷不支	膀胱
	裏病	裏之表病	王好古所論上消中消下消證	胃火肉爛之久病	胃
		裏之裏病	張仲景所論傷寒譫語證與 龔信所論陰虛午熱證	大腸火骨蒸之新病	大腸

표 9. 주요 병증의 발병 부위

少陰人				少陽人			
太陽病表證因在而小腹硬滿	表之表病	太陽病	膀胱	寒熱往來胸脇滿之證	表之表病	少陽病	膂膜
胃家實	表之表病	太陽病	膀胱 → 大腸	結胸	表之表病	少陽病	膂膜 → 胃
脾約	表之裏病	陽明病	膂膜	腹痛或泄或不泄之證	表之裏病		膀胱
太陰證	裏之表病	太陰病	大腸	上消	裏之表病		胃
黃疸	裏之表病	太陰病	大腸 → 膀胱	中消	裏之表病		胃 → 膂膜
少陰證	裏之裏病	少陰病	胃	陰虛午熱	裏之裏病		大腸
躁證	裏之裏病	少陰病 (危證)	胃	譫語	裏之裏病	(危證)	大腸

證과 少陽人 病證은 陰陽으로 正對된다³⁴⁾는 것인데, 각 病證의 병리 원칙에 대하여 제시한 원칙을 상호 연결하면 甲午本에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병증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結胸과 中消의 발병 부위에 관하여서는 甲午本에서도 명확한 제시가 없었는데, 陰陽 正對의 개념을 이용하면, 結胸은 膈膜에서 발생한 病證이 胃에 영향을 미친 病證이며, 中消는 胃에서 시작한 病證이 膈膜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3. 病證의 발병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甲午本에서의 내용 중 辛丑本에는 없는 내용에는 한 체질이라도 각기 다른 병리 기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제시해 놓았다.

즉 少陽人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취약 부위인 本에 병을 일으켜 생긴 表裏의 裏病은 哀怒喜樂의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하는데, 여기서 어떤 정서로 발병하는 지는 稟性의 軟弱과 強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稟性이 軟弱하면 哀心(情)이 偏着하여 裏의 本인 大腸之眞陰을 손상시켜 陰虛午熱之證을 많이 발생시키고, 稟性이 剛急하면 怒心(性)이 偏復하여 表의 本인 膀胱之眞陰을 손상시켜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을 많이 발생시킨다³⁵⁾고 보았다.

III. 考 察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대한 甲午本과 辛丑本의 차이를 볼 때, 우선 病證名에서의 차이를 보면, 甲午本에서는 病證名을 설정할 때 원칙과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하였다. 즉 表는 腦髓, 筋, 腰, 膀胱이며 裏는 胃脘, 胃, 小腸, 大腸으로 하고, 表에서는 外感病이, 裏에서는 內觸病이 발생한다고 보고, 각 체질의 外感病과 內觸病은 자신의 취약부위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런 양상을 보면 甲午本에서는 자신의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어느 부위에서 병이 발병을 하였는지를 病證 인식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

辛丑本에 와서는 少陰人과 少陽人 病證에 있어서는, 病의 발병에 陰陽의 升降 중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가 病證 발생의 주요개념으로 보고 이에 따라 病證名을 붙였다. 즉 少陰人의 表病은 表인 腎局의 陽氣가 脾局으로의 上升하는데 이상이 생겨 腎局에 陽氣가 싸여서 ‘腎受熱表熱病’을 일으킨다고 보았으며, 少陰人의 裏病은 裏인 胃의 陰氣가 大腸으로의 下降에 이상이 생겨 胃에 陰氣가 싸여 ‘胃受寒裏寒病證’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少陽人의 表病은 表인 脾局의 陰氣가 腎局으로의 下降에 이상이 생겨 脾局이 陰氣가 싸여 ‘脾受寒表寒病證’을 일으킨다고 보았으며, 少陽人의 裏病은 裏인 胃와 大腸의 陽氣, 上昇에 이상이 생겨 陽氣가 싸여 ‘胃受熱裏熱病證’을 일으킨다고 인식하고 病證名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病證의 분류와 치료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甲午本에서는 病證 분류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라 表病과 裏病을 表之表病, 表之裏病, 裏之表病, 裏之裏病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해당 病證을 배속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자신의 強盛한 부위인 標의 문제는 表裏의 表病을, 자신의 취약한 부위인 本の 문제는 表裏의 裏病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해당 病證을 배속해서, 少陰人의 경우는 表病에서는 標인 膀胱의 病證은 表之表病(太陽病)이 되고, 本인 膈膜의 病證은 表之裏病(陽明病)이 되며, 裏病에서는 標인 大腸의 病證은 裏之表病(太陰病)이 되고 本인 胃의 病證은 裏之裏病(少陰病)이 된다고 보았으며, 少陽人의 경우는 表病에서는 標인 膈膜의 病證은 表之表病(少陽病)이

34)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5條

“少陽少陰人病 以陰陽正對而論之則 少陽人寒熱往來胸脇滿之證 與少陰人太陽病表證因在而小腹硬滿者相對也. 結胸與胃家實相對也. 腹痛或泄或不泄之證 與脾約相對也. 上消與太陰證相對也. 中消與黃疸相對也. 陰虛午熱與少陰證相對也. 譫語與躁證相對也.”

3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4條

“少陽人稟性軟弱者 多有陰虛午熱之證 稟性剛急者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此心疾也 雖有其藥 最爲難治.”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5條

“少陽人稟性軟弱則哀心偏着也. 哀心偏着則大腸之眞陰剝傷也. 稟性剛急則怒心偏復也. 怒心偏復則膀胱之眞陰剝傷也.”

되고, 本인 膀胱의 病證은 表之裏病(腹痛泄瀉)이 되며, 裏病에서는 標인 胃의 病證은 裏之表病(上消中消下消)이 되고, 本인 大腸의 病證은 裏之裏病(傷寒譫語, 陰虛午熱)이 된다고 보았으나 병증의 치료에서는 아직 병증 분류에 따른 처방과 치료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辛丑本에 와서는 甲午年부터 庚子年까지의 임상경험례와 함께 病證의 분류도 실증적이 되고, 각 病證마다 치료 원칙이 제시되며, 처방의 구성과 구분도 명확해졌다. 즉 少陰人 表病은 亡陽과 鬱狂으로 분류하고, 치료 원칙은 '升陽益氣'로 하였고, 처방의 사용은 鬱狂證에는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을 이용하며 亡陽에는 初證에서는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하고 삼일을 사용해도 땀이 그치지 않으면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을 사용하였고, 亡陽의 危證에 사용하는 처방(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의 운용에서는 소변의 색과 양을 참고하여 附子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少陰人 裏病은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구분하여 각 치료 원칙을 '溫胃而降陰', '健脾而降陰'을 제시하며 처방에서는 太陰病에는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을, 少陰病에는 官桂附子理中湯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少陽人 表病을 보면 少陽人 表病은 少陽病과 亡陰으로 나누고, 치료 원칙은 '清裡熱而 降表陰'으로 제시하면서, 少陽病에는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을 사용하도록 하고, 亡陰은 身熱頭痛泄瀉 와 身寒腹痛泄瀉로 나누고 身熱頭痛泄瀉 에는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을 身寒腹痛泄瀉에는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少陽人 裏病은 胸膈熱證과 陰虛午熱로 분류하고, 胸膈熱證에는 石膏를 중심으로 하는 清熱 위주의 처방을 사용하고, 陰虛午熱에는 熟地黃을 중심으로 하는 滋陰 위주의 처방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IV. 結 論

① 甲午本에서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을 인식할 때, 腹背表裏와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한 標本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病證이 表裏·標本의 해당 부위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病證을 구분하였다.

② 辛丑本에서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을 인식할 때, 腹背表裏와 陰氣·陽氣의 升降을 중심으로 表裏陰·陽氣의 기능 중 어느 기능이 장애를 초래하였는가에 따라 病證을 구분하였다.

③ 病證의 분류와 치료를 보면, 少陰人 表病은 甲午本에서는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분류하였으나 처방의 분류는 명확하지 않다가, 辛丑本에 와서는 亡陽과 鬱狂으로 病證으로 분류도 바뀌면서, 처방의 분류도 亡陽과 鬱狂에 따라 명확하게 나누어졌다. 少陰人 裏病의 病證과 처방의 분류는 甲午本과 辛丑本이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④ 病證의 분류를 보면, 少陽人 表病과 少陽人 裏病은 甲午本과 辛丑本이 유사하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病證에 따른 처방의 구분에서는 甲午本에는 명확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다가, 辛丑本에 와서 少陽人 表病은 "清裏熱降表陰"의 치료 원칙이 제시되고, 病證에 따른 처방의 구분도 명확해졌으며, 少陽人 裏病도 辛丑本에 와서 胸膈熱證은 清熱 위주의 치료와 陰虛午熱은 滋陰 위주의 치료 원칙이 제시되고 처방의 구분도 명확해졌다.

참 고 문 헌

1. 전국한과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集文堂, 1997
2. 사상체질의학회:동의수세보원 갑오구분(복원본), 서울, 2001